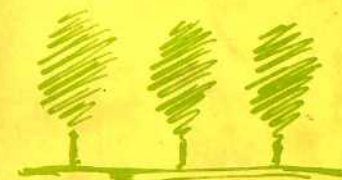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1

인권하루소식

합본 1호
(1호~100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인권정보자료실
R1.1.1

인권운동사랑방



차 례

- 격려사 일반시민들에게 즐겨 읽히는 소식지가 되길** · 김창국(서울변호사회 회장) / 3
머리글 '문민'정권 1년의 인권 · 서준식(<인권하루소식> 발행인,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 5
편집후기 평화의 날을 꿈꾸며 · 염규홍(<인권하루소식> 편집인) / 337

준비 1호(93.8.4, 수) / 31

- 1면 ·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범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유가협 박정기 회장, 국순단 부단장 맡아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원회」 8월 5일 결성
·「유서사건 총자료집」 한정 200질 판매중
2면 · 노태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가톨릭 정보센터 국제연대활동 워크샵 개최
·윤금이 공대위 소식

준비 2호(93.8.5, 목) / 33

- 1면 · 민가협·범추본 명동성당 농성 속보, 가두선전 및 장기수 한마당 가져
·한충련 구국대단식 돌입, 8월 4일부터 13일까지
·노태훈씨 구속적부심, 8월 5일 오전 11시
·천정련 장기수 후원회, 지리산 3박 3일 수련회 가져
·「민주법학」 6호 발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엠네스티 한국지부 소식
2면 ·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학단협 등 5개 단체

준비 3호(93.8.6, 금) / 35

- 1면 ·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 벌여, 옥중단식대표자 면담요청 소측거부에 항의
·「황석영 대책위」 결성, 8월 5일 민예총 강당
·노태훈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출두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인권위 공청회
2면 · 노태훈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미군범죄 근절대책 촉구, 미 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원회」 성명서

준비 4호(93.8.7, 토) / 37

- 1면 · 대전교도소, 농성단에 폭력행사, 손병선씨 딸 방패에 머리 찍혀 부상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결성, 8월 9일(월) 종로구 효제빌딩 윤후사에서

준비 5호(93.8.10, 화) / 38

- 1면 · 양심선언 군인전경 석방 요구,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9일 오후 발족
·대전교도소장 폭력행위 인정, 8월 6일(금), 부상자 치료 책임지기로
·조국교수 석방 AI 요구
·국제연대 워크샵 마쳐
2면 ·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일부 게재)
·국제 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준비 6호(93.8.11, 수) / 40

- 1면 · '위안부'문제 정부입장 표명 요구, 정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노태훈 석방요구 잇따라
2면 · 일본정부의 강제 중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요약)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초발제문(발췌)

준비 7호(93.8.12, 목) / 42

- 1면 · '위안부' 진상조사 배상촉구 집회,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국 교수 50일만에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국보철폐 시위한마당 열려, 12일 6시 연대 노천극장
·여성단체 한 건물로 이사, '여성 평화의 집' 마련

준비 8호(93.8.13, 금) / 43

- 1면 ·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
·「사회주의 과학원」 반국가단체로 규정, 황주석·조국씨 등 기소내용에서
·손민아씨 사당의원에 입원
·중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2면 ·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범민족대회 개막식 하루 연기, 대통령 결단 요구
·국보철폐 한마당 장소 옮겨 진행
·범민족대회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일부 게재)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준비 9호(93.8.14, 토) / 45

- 1면 ·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진 운영위 노태훈씨 석방촉구
·9일, 국순단 대전교도소 시위로 6명 구속

준비 10호(93.8.17, 화) / 46

- 1면 ·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보법·노동쟁의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성순희씨(손병선씨 부인) 투병끝에 사망, 수배 중 지병 악화로, 19일 장례식
·황석영씨 3회 공판
·배병성씨 변호인 보석신청
2면 · '8·15 특사'에 분노, 일본 한국관련 인권단체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내창열사 4주기 추모식
·엠네스티 뉴스 97호(93.8.13), 한국: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준비 11호(93.8.18, 수) / 48

- 1면 · "손병선씨 일시 석방 불투명", 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유가협, 범민족대회 기간 국회청원 서명운동 벌여
·김용갑열사, 이내창열사 추모사업회 추모비 건립 추진
·양심선언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

호외(93.8.18, 수) / 49

- "대법원, 손병선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

준비 12호(93.8.19, 목) / 50

- 1면 ·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노조 간부집 도청
- AI 제21차 국제대의원총회 열려, 보스턴 8월 6-14일

준비 13호(93.8.20, 금) / 51

- 1면 ·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손병선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농성

준비 14호(93.8.21일, 토) / 52

- 1면 · 정부, “직업병 외면, 땅투기 부추켜”, 원진레이온 터 용도변경
- 양심선언 전경에 징역 2년 구형, 강태중 일경 첫 재판에서
- 손병선씨 단식마쳐

준비 15호(93.8.24, 화) / 53

- 1면 · 원진, 대책없는 파산 결정 거부 농성 돌입, 명동성당, 24일부터
- 케네디인권센터,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 정치수배자 대책위, 총장 등 15여명 서명받아
-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2면 ·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귀하(케네디 인권센터의 서한)

준비 16호(93.8.25, 수) / 55

- 1면 · ‘원진’ 350명 명동성당 농성 돌입, 24일 고용보장·직업병 대책 마련요구
- 속초 동우전문대 분규예고, 김용갑열사 추모비건립등 요구 단식농성
- 김국해씨 폭행미군, 30일 선고
- 「민가협」 수련회, 「유가협」 호남지부 총회

준비 17호(93.8.26, 목) / 56

- 1면 ·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 가평군 군청직원·경찰이 장애인 무차별 구타
- 민가협 공동의장, 배병성군 부모 수배, 26일 배군 부모 출두키로
- 2면 · 속초 동우전문대 파행적 운영, 학내신문 사전검열, 전재욱 이사장 급품제공
-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 12명 새로 합류, 28일 ‘가족 상봉의 날’ 행사도 갖기로
- 「장애인 폭행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준비 18호(93.8.27, 금) / 58

- 1면 ·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 연행, 영장제시 없어, 연행사유 및 장소 안 알려
- 원진실상 바로알리기 행진 명동성당에서 탑골공원까지
- 양심선언 군인·전경 재판 잇달아 열려
- 2면 ·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 유엔 인권소위, 결의안-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

준비 19호(93.8.28, 토) / 60

- 1면 · 장의권·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영장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등 13명 강제연행
- 2면 · 장의권, 황대권·김성만씨 사건의 개요

- 이종수 일경 재판연기
- 유엔세계인권대회 평가회 열려
- 원진레이온 결의대회 오늘 3시 열려

준비 20호(93.8.31, 화) / 62

- 1면 · 무더기 구속·짜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
-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들 단식농성 풀어, 재판측에서 요구사항 대부분 받아들여
- 2면 · 학생 수배자들, 가족들과 상봉 28일(토) 연세대에서
- 황석영씨 4회공판, 변호인 반대신문 마쳐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결정문

준비 21호(93.9.1, 수) / 64

- 1면 · 수배·해고 노동자 94일째 농성중, 복직·수배해제·구속노동자 석방 요구 민주당사에서
-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의 일병 공판에서
- 인권운동 사랑방 월례세미나 성황

준비 22호(93.9.2, 목) / 65

- 1면 · 정부, ‘정신대’ 문제 굴욕적 태도, ‘배상·보상 요구 않기로’ 재천명
-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강압수사 항의 단식중 탈진, 민정련 회원 공인표서
- 2면 · 외무부의 정대협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전문)
- 외무부 답신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

준비 23호(93.9.3, 금) / 67

- 1면 ·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 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 ‘6공 정치수배 해제는 과거청산의 문제’, 수배자 대책위, 악법철폐등 요구

준비 24호(93.9.4, 토) / 68

- 1면 · 출감후 의경제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2면 · 김대영 의경 탄원서(발췌)

창간호(93.9.7, 화) / 73

- 1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사,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 2면 · ‘문민적’ 시대에 인권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창간, 400여 독자에게 배달
- 수배해제 촉구대회, 오늘 연세대 광장에서
- 이문옥 감사관 무죄판결, 양심선언자 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연극 「완전한 만남」공연, 학전소극장, 9월 7일-22일
- 3-4면 · 창간격려문
- 5-6면 · <인권하루소식> 준비호 총목차(준비 1호-24호, 8월 4일-9월 4일)

제2호(9월 8일, 수) / 79

- 1면 · 과거 잔재청산 및 국민화합 차원 수배해제 필요, 7일 연세대 민주광장
- 2년 구형받은 강태중 일경 합의부로 이송 공판재개
- 법원, 김국해씨 폭행범 존 로저 공판재개하기로
- 2면 · ‘정신대 진상규명위원회’ 발족-8월 25일, 강만길 교수 4등 학계중심으로
-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9월 7일, 6공 정치수배 해제 촉구대회 성명)

제3호(93.9.9, 목) / 81

- 1면 ·주한미군 철수, 임용고사 철폐' 주장하며 분신, 8일 광주교대 이경동씨
 - 김삼석씨와 여동생 불법 연행 당해, 8일 낮, 영장도 없고 연행장소도 밝히지 않음
 - 검찰, 안기부 직원 증인 신청, 이공순 기자 25차 공판에서
- 2면 ·주한미군 범죄근절 위한 상설기구 결성하기로
 - 재판부, 김국혜씨 증언듣기로
 - 정대협, 사회당 위원장에게 '진상규명' 노력요구
 - 이경동씨 유서, 국민 여러분께 한 교대생이 호소합니다

제4호(93.9.10, 금) / 83

- 1면 ·"김영삼 정부 왜 이러나", 불법연행 횡행, 8일 김삼석씨 남매 연행 10일 소재파악도 안돼
 - 분신한 광주교대 이경동씨 끝내 사망, 9일 아침 전남대 병원에서, 13일 장례식
- 2면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절실하다", 9일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 성명서;김삼석씨와 김은주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민가협등 3개단체)

제5호(93.9.11, 토) / 85

- 1면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씨 남매 8일 연행, 잠안재우기 여전
 -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 양심선언 전경 3년 구형, 이종수 첫 공판에서
- 2면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하는가,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제6호(93.9.14, 화) / 87

- 1면 ·'원진특별법' 제정 강력요구, 원진 노동자, 오늘 명동성당 2차 농성 돌입
 -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특별법 필요', 11일, 전해투 대회에서
- 2면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전노대, 서울지하철 노조, 원진레이온, 병원노련등)

제7호(93.9.15, 수) / 89

- 1면 ·노태훈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법조인·문화인등 187명
 -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
 - 정대협 '수요시위'
- 2면 ·성명서;노태훈씨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계·법조계·학계 등
 - 정치수배자 투쟁기금 마련 일일주점, 정치수배자들의 친구·선후배

제8호(93.9.16, 목) / 91

- 1면 ·원진 노동자, 청와대 면담 무산, 명동성당 2차 농성 속보
 - 민정련 용인지부장 경찰에 연행, 소재파악 안돼
 - 전해투 투쟁기금 마련 시민한마당, 26일 서울대에서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안내
- 2면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제9호(93.9.17, 금) / 93

- 1면 ·폭행당한 장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평군 장애인 폭행사건', 수사의 공정성 의문
 - 반인륜적 행위 이제는 그만, 해고노동자 부모, 아들 복직 안되자 자살
 - 명동성당 농성, 원진레이온 속보
- 2면 ·김삼석씨 남매 사건 설명회, 연락모임 가지기로
 - 민정련 지부장 양춘모씨, 16일 오후 석방
 - 15일 사망한 배상봉씨(배일도씨 아버지)의 자살에 대한 전해투의 성명서

제10호(93.9.18, 토) / 95

- 1면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엠네스티, 영장없는 체포·잠안재우기에 우려
 - 안기부, 김삼석씨 부인의 남편 구원활동 위협
 - 여성운동의 장충동 시대 개막, 17일 여성 평화의 집 개관식
 - 대구·경북 총학생회 연합의장 권혁명씨 불잡혀, '한총련 전화회담' 관련
 - 월간인권 9월호 발행, 한교협 인권위
- 2면 ·국제 엠네스티의 김삼석씨 남매 사건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공문

제11호(93.9.21, 화) / 97

- 1면 ·'의문사·고문등 과거청산 주력', 유가협 18일 8차 정기총회, 회장단 개편, 명칭도 바꿔
 - '창살없는 감옥생활', 6공 정치수배해제 촉구, 20일 불교인권위, 8일 한교협 인권위
 - '원진직업병' 화형식, 원진특별법 제정 요구대회에서
 - 교도소 곳곳에서 옥중투쟁, 공주·홍성·춘천교도소등
 - 방북(시도)인사 국보법공판, 황석영, 박동수씨등
- 2면 ·박동수씨의 최후진술중 방북추진 동기

제12호(93.9.22, 수) / 99

- 1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한·일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21일부터 사흘동안
- 2면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

제13호(93.9.23, 목) / 101

- 1면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씨 자해로 고발
 - '원진' 정치적 해결 촉구, 청와대 뒤 인왕산에서
 - '외국인노동자 보호 필요', 한·일 연대회의 이틀째
 -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양심선언 군경 중 첫 집유
- 2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4호(93.9.24, 금) / 103

- 1면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씨 손해배상 청구
 - 민가협, 23일 첫 목요일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2면에 계속)
- 2면 ·'외국인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일 연대회의의 공동성명, 차별법규·제도 철폐도 요구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의 공동성명서
 - 신내택지지구 철거민 찬바람에 내몰려

제15호(93.9.25, 토) / 105

- 1면 ·안기부, 김삼석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 엠네스티, 김삼석씨 남매 고문과 자백강요 우려
- 2면 ·안기부 발표중 김삼석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국제 엠네스티의 김삼석씨 남매에 대한 2차 긴급구명 활동 공문

제16호(93.9.28, 화) / 107

- 1면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121일째 농성중
 - 정부의 원진문제 해결자세 규탄, 25일 명동성당 집회에서
 - 검찰, 김삼석씨 송치후 수사 이유로 사실상 10일간 접견 금지
- 2면 ·성명서;김영삼 정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 즉각 해결하라
 -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가 담당검사에게 보낸 면회요청서

제17호(93.10.5, 화) / 111

- 1면 ·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장애인 공대위' 김성재 위원장, 연구차 외국으로 출장
- 2/3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호-14호 총목차(9월 7일-9월 28일)

제18호(93.10.6, 수) / 114

- 1면 · 단식중인 노동자 2명 병원 후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민주당사 단식 26일째
 - 불교인권위, 수사기관 개혁 촉구
- 2면 · '제도개혁, 인권교육' 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장 취임
 - 한교협 김재열 인권위원장의 취임인사말
 - 원진노동자, 국회의원 일대일 호소하기로

제19호(93.10.7, 목) / 116

- 1면 ·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씨에게 2년 구형
 - 북한방문 시도 노동자 실행선고
- 2면 ·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또 탈진,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요구
 -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부분 추가기소 안해
 - '자민통 사건 관련 수배자 김석씨 연행'

제20호(93.10.8, 금) / 118

- 1면 ·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석방요구, 민가협 2차 목요시위
- 2면 · 심금섭씨 부인 위독, 변호인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정대협 북한 접촉승인 요청, 전후문제 처리 토론회 참가 위해
 - 양심선언전경에 '재북무명령', 이지문 중위 등 파면취소 탄원

제21호(93.10.9, 토) / 120

- 1면 · 전해투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동성 돌입
 - 국제변호사 협회, 노태훈씨 석방요구, 김영삼대통령에게 서한
- 2면 · 김삼석씨, 검찰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번, 검찰수사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황주석씨 등 '사과원' 사건공판
 - 심금섭씨 구속집행정지 신청·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씨 7일 오후 사망

제22호(93.10.12, 화) / 122

- 1면 · '유서대필사건' 중요증인 홍성은씨,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 강기훈씨, 검찰 국감장 증인
- 2면 · 황석영씨 결심공판, 합귀용검사 무기징역 구형
 - 대법원, 김낙중씨 무기징역 확정
 -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은 민주주의 정도를 확보해가는 투쟁", 9일 5차 결의대회 열려
 - 홍성은씨 기자회견문(전문)
- 3면 · 홍성은씨 기자회견과 국감에 대한 '강기훈씨 무죄석방 공대위' 논평

제23호(93.10.13, 수) / 125

- 1면 · 김삼석씨 성고문사건, 국내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엠네스티 우려 표시
 - 문익환목사, 이창복의장 등, 민주당·노동부 등에 해고자 문제해결 촉구
 - 황석영씨 무기구형 항의성명서 발표

- 엠네스티, 정부에 수십명의 장기수 재심을 촉구
- 2면 · 국제엠네스티, 한국:수십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황석영 대책위」·민예총·작가회의

제24호(93.10.14, 목) / 127

- 1면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식, "이 사회의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
 - 해고노동자,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후 해산, 15·18일경 노동부장관과 면담하기로
 - KNCC 인권위, 대통령에게 강기훈씨 무죄석방 탄원
- 2면 · 문국진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및 의사 소견서

제25호(93.10.15, 금) / 129

- 1면 ·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14일, 국감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 캐나다 인권단체 ICHRDD대표, KONUCH 대표단 만날 예정
 - 민가협 '목요집회' 가져
- 2면 · 단체탐방/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
 -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CHRDD, 캐나다) 소개

제26호(93.10.16, 토) / 131

- 1면 · '김낙중씨 간첩단사건' 노중선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 5공치하 안기부 고문피해자 최영미씨 가족, 대통령에게 치료요구 탄원서 내
 -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 단식돌입
 - AI, "황석영씨 석방여부 인권개선 의지 시험대"
- 2면 · 최영미씨 가족 탄원서
 -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제27호(93.10.19, 화) / 133

- 1면 ·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2면 ·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제28호(93.10.20, 수) / 135

- 1면 ·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씨 첫 공판 열려
 - 정대협 대표단 20일 출국
- 2면 ·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공동성명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29호(93.10.21, 목) / 137

- 1면 · 김삼석씨 성추행 안기부원 고발, 부인 윤미향씨 20일 접수, 김씨 안기부원 이름 밝혀
 - 사노맹 관련 문영찬씨 구형 7년
 -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 노태훈씨 집행유예로 나와
- 2면 · 안기부원 고소(고발)장
 -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제30호(93.10.22, 금) / 139

- 1면 ·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대표 증언,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 검찰 황석영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
 -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법률(안)
- 2면 ·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법률(안)

제31호(93.10.23, 토) / 141

- 1면 ·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행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양심수 복역자 병무청에 징집영장 반납키로, 23일 11시 노태술 등 5인
 - 육군교도소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 등 청원
- 2면 ·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제32호(93.10.26, 화) / 143

- 1면 · '문민적 사법부' sbs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시키
 - 강기훈공대위·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황석영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
 -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
- 2면 ·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결의대회에서
 - 강기훈공대위 성명서, 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제33호(93.10.27, 수) / 145

- 1면 ·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 "생색내기식 과거청산" 전해투·민가협 10:25 수배조치 한계 지적
 - sbs '강기훈...' 방영취소, 언론의 자유, 알권리 침해,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
- 2면 ·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
 - 26일 전해투 연행자 및 상황일지
 - 전해투 성명서-정부의 10:25 수배해제 조치는 과거의 악순환을 답습하는 것
- 3면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 민변 성명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34호(93.10.28, 목) / 148

- 1면 ·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진압, 경찰청장 "인권보호하겠다"고 하던 날도 폭력 행사
 - 변호사 자격 실질적 심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씨 개업허용 계기로
- 2면 · 성명서;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

제35호(93.10.29, 금) / 150

- 1면 ·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28일 「김삼석·김은주 대책위」 기자회견
 -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면 ·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전해투 지원대책위
 - 윤금이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 병무청, 출소양심수 징집연기 의사 밝혀
 - 인권단체, 강수립의원과 인권현안 간담회 가져
 -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와 「남누리영상」 제작부장의 증언내용 요약

제36호(93.10.30, 토) / 152

- 1면 · 김근대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조용환 변호사
 - 원진비대위, 종로서장 폭력혐의로 고발, 종로서장, 원진비대위 관련자 출두요구
 - '간첩죄 기소' 김삼석씨 유명단체 대표 조작 의혹
- 2면 ·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
 - 양심선언 이재원 일경에 3년 구형
 - 배병성 3차공판, 경찰 3명 증인신문
 - 오늘, 윤금이씨 1주기 추모제 및 민족자주를 위한 시민의 밤 열려
 -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제37호(93.11.2, 화) / 157

- 1면 · "반성문 요구하는 자진출두에는 응하지 않을터", 수배자 대책위
 - 경찰, 1일 민정련 회원 12명 연행, 수사장소 안알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자민통사건' 수배자 연행, 허락·박영재씨 남영동으로
 - AI 아시아 조사관 방한, 정기방문차 17일간 일정
- 2/3면 ·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10월 5일(17호)-10월 30일(36호))

제38호(93.11.3, 수) / 160

- 1면 · 6공 정치수배자, 자진출두 않기로, 2일 기자회견에서 밝혀, 3일 86일간 농성 풀기로
 - 31일 연행된 민정련 회원 2일 전원 풀려나
 - 사노맹 관련 10년 구형 백성기씨, 3년 선고받아
 - 5·6공 강제징집 희생자 위령제 열려, 양군모 주최
- 2면 · 단체탐방 2/불교인권위원회

제39호(93.11.4, 목) / 162

- 1면 · 원진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 이내창 열사 추모비 제막식
 - 사노맹 관련 문영찬씨 2년 6개월 실행 선고받아
- 2면 ·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양길승)

제40호(93.11.5, 금) / 164

- 1면 · 억울한 '살인범' 이형자씨 무죄석방 촉구, 부산 11일 「무죄석방 촉구의 밤」 개최
 -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구속하라", 민가협 목요일집회, 인제군·박충렬씨 증언
 -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중
- 2면 ·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
 - 정대협 대표 5일 평양으로, 전후처리 국제토론회 참석차
 -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제41호(93.11.6, 토) / 166

- 1면 · sbs 「강기훈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 계기로, '유서사건' PC통해 공개토론 진행
 - 제작진과 교양제작국 PD 성명서 내 불방에 항의
 -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2면 ·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서울대교과 성희롱사건 대책위, 총장에 항의서한 보내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누가 유서를 썼는가" 불방에 대한 입장, 교양PD, 제작진 일동
 - Hitel,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내용 발췌

제42호(93.11.9, 화) / 168

- 1면 · “이장형·강희철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등
 -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
 - 이형자씨 항소심 선고공판, 11일 10시 부산고법
- 2면 ·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
 - 가혹행위·성추행 안기부원 수사촉구 서한보내, 윤미향씨
 -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
 - 기자회견문, 이장형·강희철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제43호(93.11.10, 수) / 170

- 1면 ·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합의
 - 6공 수형생활 양심수, 군문제해결 촉구, 서울동 전국 7곳 병무청 앞 동시집회 가져
- 2면 · 원진합의서(전문)

제44호(93.11.11, 목) / 172

- 1면 ·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노·사·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임용고시 철폐” 등 주장하며 또 분신, 10일 오전 광주교대 한상용씨
 -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 주장, 전특련 민주당 단식농성 8일째
- 2면 · 단체탐방 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정신대 자료집 IV』 발간

제45호(93.11.12, 금) / 174

- 1면 · 부산고법 이형자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 미하원의원 24명 일본에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서한, “공식적으로 사과 및 배상해야”
 - ‘강기훈사건’ 방영 불투명, sbs 시청자위원회 심의 안해
 - “복직되던 체대조치 하겠다” 병무청 병역특례해고자에 대한 입장 밝혀
 - 민가협 7차 목요집회,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 2면 · 이형자씨 변론요지서(일부 게재)
 - 일본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한 미 하원의원 명단

제46호(93.11.13, 토) / 176

- 1면 ·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 정대협 대표 평양토론회 참가 기자회견, 13일 1시
 - 전특련 민주당 농성 풀어
 - 광주교대생 장례식 치뤄
- 2면 · 엠네스티 소개, 전세계 수많은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 긴급구명활동이란?

제47호(93.11.16, 화) / 178

- 1면 ·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사 농성 시작, 15일 민자당사 앞 집회도 가져
 -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엠네스티 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제48호(93.11.17, 수) / 179

- 1면 · 새정부 출범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엠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후 신상자료 요구,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주장 확산
 - 이내창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기자 무죄
 - 전태일 추모식 14일 열려

- 2면 · 이내창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안기부 통신검열에 대한 통신이용자들의 의견(요약)

제49호(93.11.18, 목) / 181

- 1면 ·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 9일 결의안 초안 작성
 -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
 -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 2면 · 단체탐방 4/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제50호(93.11.19, 금) / 183

- 1면 ·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문국진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제’ 제정 실시
 -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 2면 · 형사법정운영표준제

제51호(93.11.20, 토) / 185

- 1면 ·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등
 -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샵,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
- 2면 · 전노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추가 제소(NO. 1629) 내용요약
 -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

제52호(93.11.23, 화) / 187

- 1면 · 어린이 성폭력 사회적 관심 필요, 19일 성폭력 예방교육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 열려
 - 양심수 부당징집 폐지와 사회복귀 서명운동, 여야 국회의원 131명 교수 1100여명 넘어서
 - 노동법 개정 홍보, 전노대
- 2면 ·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행,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최영애

제53호(93.11.24, 수) / 189

- 1면 ·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씨 방한, 27일 전국연합 인권위 초청으로
 - 성희롱사건 첫 법정공방 시작
 - 세번 ‘탈영범’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조정희 일병 재판도
- 2면 · 이스트 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
 - 서울대 교수 성희롱사건 경과

제54호(93.11.25, 목) / 191

- 1면 ·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민변·전국연합 토론회
 - 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투자기관에 우선 채용키로, 폐업대책 당정협의에서
 -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
 - 사후영장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 2면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제55호(93.11.26, 금) / 193

- 1면 ·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 외무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면담 거절, 세계 평화와 인권향상 의지 부족

·민가협,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
2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 윤점룡교수 진술내용

제56호(93.11.27, 토) / 195

1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장애인 교육의 중심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해고노동자 또 폭행 당해, 26일 대립자동차
·연구단체 여전히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집유
2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문

제57호(93.11.30, 화) / 197

1면 ·고립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씨 강연회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사노맹 활동관련 대학생 구속
2면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제58호(93.12.1, 수) / 201

1면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된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씨, 인권운동 사랑방 세미나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찬양으로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수형생활 제자들의 군문제 해결촉구 교수단 기자회견
2/3면 <인권하루소식> 11월분 총목차(37호-57호)

제59호(93.12.2, 목) / 204

1면 ·세계인권선언일 전후로 인권단체 다채롭게 행사 준비중
·원진레이온 파산선고, 30일 의정부지원
·민가협 열번째 목요일집회, 오늘 2시 거리음악제 마련
2면 ·단체탐방 5/한국여성의 전화

제60호(93.12.3, 금) / 206

1면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 '검열' 제한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민가협 10차 목요일집회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
·반민주·반통일 악법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기장총회 주최로
2면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61호(93.12.4, 토) / 208

1면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배병성씨 5차공판 부검의 증언
2/3면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박원순

제62호(93.12.7, 화) / 211

1면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부당징집 폐지 항의방문, 양군모 9일까지 국방부앞
·직장내 성희롱문제 토론, 오늘 '성희롱공대위' 주최
2면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청구(전문)

제63호(93.12.8, 수) / 213

1면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씨 끝내 연행, 컴퓨터 통신내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
·김대영·박영생 1년6월 선고
2면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이종걸

제64호(93.12.9, 목) / 215

1면 ·북한 적십자회, 출소 장기수 김국홍·함세환노인 송환 요구, 한국적십자사에 전화통지문
·국방부, 시국관련 수형자 보충역편입 거부, 인사국장 6일 보도자료 배포, 양군모 반발
·경찰 김형열씨 구속, 컴퓨터통신 관련 최초
2면 ·단체탐방 6/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제65호(93.12.10, 금) / 217

1면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이석태
2면 ·AI 사형집행 중지·사형제도 폐지 요구, 법무부 새정부 출범해 관례따라 집행 안하기로
·국제엠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12월 8일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받아들여
·조영래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제66호(93.12.11, 토) / 219

1면 ·문민적 정부 출범 첫째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행사 줄이어
2면 ·검찰, 헛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원진폐업투쟁 보고대회, 11일 구리민방위교육장
·성명서-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KNCC 인권위)
3/4/5면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제67호(93.12.14, 화) / 224

1면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등 고소, 11월 26일 방양군씨, 안종택 담담검사도 고소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
·「성폭력위기센터」 문열어, 성폭력상담소
·김삼석씨 고문 고발인 조사, 13일 서울지검
·「장애인복지정책」심포지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불교법률상담소 개설, 부산불교인권위
·'원진노동자 후원회' 결성, 13일 일본
2/3면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조홍식

제68호(93.12.15, 수) / 227

1면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국방부 앞 양군모회원 등 500여명 촉구
·김삼석 남매 구원회 결성, 10일 일본 동경
·오늘 '빈곤과 장애' 토론회, 15일 장애인 실태조사에 앞서
2면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한상범

제69호(93.12.16, 목) / 229

1면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통과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등 16명
2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70호(93.12.17, 금) / 231

- 1면 ·윤금이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객들 향의
 - pc통신 최초로 기소, 김형렬씨 국보법 위반으로
- 2면 ·단체탐방 7/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 운동

제71호(93.12.18, 토) / 233

- 1면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목인
 -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등 13명 구속, 수사 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 양심수 군문제 청원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
- 2/3면 ·김삼석·김은주씨 모두진술서

제72호(93.12.21, 화) / 236

- 1면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 2면 ·지체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장애인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잡은 택시기사들 엄중처벌 약속받고 해산
 -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제73호(93.12.22, 수) / 238

- 1면 ·서울대교수 성희롱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공판 "신교수 성희롱 장면 목격했다" 주장
 - 검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
 -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 열려, 형사적 책임과 배상 등 논의
- 2면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2/3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74호(93.12.23, 목) / 241

- 1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물론이지."
 - 말지 1월호;고개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심(발췌)
 -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양심수 석방요구 집회, 다시 갖지 않기를', 민가협 집회
- 2면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법적 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행령 마련에 참여 방침

제75호(93.12.24, 금) / 243

- 1면 김선명씨 44년째 감옥살이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
 - 성명-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민가협
 - 성명(발췌)-민주당 인권위원장 강수립
- 2면 ·발표문(발췌)-법무부,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대상자 명단

제76호(93.12.28, 화) / 245

- 1면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 윤연옥씨 첫회 출연
 - 성명서;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KNCC 인권위

제77호(93.12.29, 수) / 246

- 1면 ·'고문용인 발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 요구, 민가협 등 8개 단체
 - 성명서;최형우 내무부장은 고문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등

- 고문후유증 국회에 청원,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 2/3면 ·<인권하루소식> 선정 「93 인권 10대 뉴스」

제78호(94.1.5, 수) / 251

- 1면 ·고문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민언협, 「93년 10대 왜곡·편파 보도사례」 선정, 백운두 신장 생존설,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 2면 ·신년특집/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물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이 아니다

제79호(94.1.6, 목) / 253

- 1면 ·양심수 군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국회 본회의 통과 국방부는 겹허히 받아들여야
 - AI, 김형렬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 2/3면 ·<인권하루소식> 12월분 총목차(58호-77호)

제80호(94.1.7, 금) / 256

- 1면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언제까지, 민가협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일집회' 새해 계속
 - AI도 김선명씨 석방 요구
 - 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2명 또 연행, 경찰 연행장소 안 알려
 - '사랑방' 이성훈씨 호주 외교훈련과정에 참가
- 2면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 신설 결의문
 - '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

제81호(94.1.8, 토) / 258

- 1면 ·「말」 「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김은주씨 2차 공판
 -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투쟁
- 2면 ·김은주씨에 대한 검찰 신문내용(요약 발췌)

제82호(94.1.11, 화) / 260

- 1면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씨 「복직조치」 「무죄판결」등 후속조치 없어
 - MBC 「PD수첩」 김기웅순경사건,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2면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고 박종철씨 7주기 묘소참배, 9일 모란공원 묘지
- 2/3면 ·김기웅 순경, 고소·고발장

제83호(94.1.12, 수) / 263

- 1면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10일 KNCC 인권위
 -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순경 대법원에 탄원서, "무죄확실한만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
- 2/5면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일-10일)

제84호(94.1.13, 목) / 268

- 1면 ·연초부터 철거나서 주민들과 충돌, 양천구 신정5지구 재개발지역, 경찰 주민들만 연행
 - "외국인 노동자도 기계는 아니다", 13명 경실련서 10일부터 농성중, 산재치료·보상등 요구
 - '소사장제'반대 단식농성, '경기유리' 노조위원장
 - 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 제11회 여성동아대상 수상
- 2면 ·교묘해진 고문현실-한국대표적 사례로 언급, AI 빼엘 씨네 사무총장 인터뷰(요약)
 -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제85호(94.1.14, 금) / 270

- 1면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 국보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군사법원 조정희일병
- 2면 ·단체탐방 8/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제86호(94.1.15, 토) / 272

- 1면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 열려
 - sbs '투맨쇼' 15일 성희룡 토론코너 마련
- 2면 ·특집:고문후유증 사례 1-최영미씨

제87호(94.1.18, 화) / 274

- 1면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
 - 미허가 북한 전화통화 국보법 구속, 15일 경찰청
- 2/4면 ·5대 일간지 기사색인(1월 11일-17일)

제88호(94.1.19, 수) / 278

- 1면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 헌법재판소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사건등 결정 서둘러야
- 2면 ·특집:고문후유증 사례 2-김복영씨

제89호(94.1.20, 목) / 280

- 1면 ·'민족의 큰별' 추모의 발길 끊임없어, '통일의 선구자 문익환 목사 거래장' 22일
 - "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제103차 수요시위
 - 오늘, '고 황인철 변호사' 추도미사 및 추도식
- 2면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
 - 정치적 살인·실종반대 캠페인 AI한국지부
 - 대한변협 성명서
 - 아·태지역 주요민간단체들 상호협력 체계 발전할 듯
 - 아·태지역 인권단체 국제회의의 2월에 열려

제90호(94.1.21, 금) / 282

- 1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절실, ILO 『93 노동통계연감』
 - 문민적 정부의 여성정책 진단, '여연' 오늘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개최
 -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 목사 거래장」 소식
- 2면 ·"우리는 결코 문목사님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민가협 '문익환목사 추모 목요집회'
 -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후 첫 공판에서
 - 병역특례문제 공청회, 전해투 28일로 연기
 - 민주당 인권위 성명서;고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면, 복권 요청
 - ILO 『93 노동통계연감』중 중대재해율, 주당 노동시간

제91호(94.1.22, 토) / 284

- 1면 ·'김기웅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이기택 민주당 대표등
 - 장애인잡지 <열린지평> 94년 봄호(2호) 발간
 - 엠네스티 한국지부 집행위, 23일 오후 1시
 - 김삼석·김은주 남매,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
 - 「고 문익환목사 거래장」 소식

- 2면 ·김삼석 반대신문(일부 내용)
 -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조전

제92호(94.1.25, 화) / 286

- 1면 ·열악한 노동조건 비판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등 주장
 -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공판
 - 양심수 군문계 해결 촉구, 기독교 성직자 1,517인
- 2/3면 ·5대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1월 18일-24일)

제93호(94.1.26, 수) / 289

- 1면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물렸던 김종경씨 손배소송, 27일 수원지법
 - 통일원 김인서·함세환씨 방북 긍정검토, 북한 '동진호 선원송환 등에 성의 보일 경우'
 - 「한국여성의 전화」 인천에 지부 개원
- 2면 ·특집:고문후유증 사례 3-김종경씨

제94호(94.1.27, 목) / 291

- 1면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걸기운동도 펼쳐
 -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
 -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 2면 ·유엔 세계여성대회 소식(1), 95년 9월 4-15일 북경
 -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이집트 카이로, 9월 5일부터 13일부터
 - 「제5회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 진행중, 시드니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 1일 10일부터
 - 송광영열사 어머니 이오순씨 별세

제95호(94.1.28, 금) / 293

- 1면 ·택시노련 완전월급제 실시 요구, 26일 대의원대회, 사납금 폐지도
 - 고문피해자 보상대책 청원, 26일 법사위에 회부
 - 김국홍씨등 송환 재촉구, 27일 송환추진본부
 -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의 인권현황' 논의
 - "진정한 탈영병은 누구인가", 박석진 항소심 최후진술
- 2면 ·'인권운동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장애인 복지실태에 관한 이해(발제 요약)/김정열

제96호(94.1.29, 토) / 295

- 1면 ·'원진 직업병' 올해 들어서도 8명, 4개 환자단체 29일 통합
 - 일본 검찰에 '군 위안부' 책임자 고소·고발장 낼듯, 정대협
 - <시민과 변호사> 창간, 서울변호사회
 - "정부, 복직약속 지켜야", 「해고자 복직...공청회」
 - 양심수 사회복귀 보장 촉구, 양근모 대표 병무청장 면담도
- 2면 ·단체탐방 9/노동과 건강연구회

제97호(94.2.1, 화) / 299

- 1면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 "언론의 인권침해 구제", '바른 언론 시민연합' 창립
 - "교도소장에게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지난 19일 영등포교도소
 - 엠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 2/3면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78호-96호)

제98호(94.2.2, 수) / 302

- 1면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중점, 「여연」 정기총회, 여성의 권익 향상 위해
 - 40년 감옥살이 안학섭씨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선정 전세계에 호소
 - 인천 당직변호사제 실시, 인천지방변호사회
 - KONUCH 대표단, 세계인권대회 후속회의 참가, 2-3일 방콕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
 - 영등포교도소 인권유린 항의집회, 오늘 12시, 교도소 앞
- 2/4면 ·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4/7면 · 주·월간지 기사색인

제99호(94.2.3, 목) / 309

- 1면 ·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열려, 1월 31일-3월 11일, 제네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각될 듯
 -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소장 사과·징벌 해제' 농성중, 2일 영등포교도소 앞
 - "국제화는 정신대문제 올바른 해결로부터", 2일 105차 수요시위
 - '언론' 인권침해 적극 대처, 2일 「바른언론」 창립대회
 -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임수경·김광석씨등 출연, 22차 목요집회, 3일 2시
- 2/3면 ·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레세라노
- 3면 · 국제앰네스티, 미국내 사형집행 중단 요구

제100호(94.2.4, 금) /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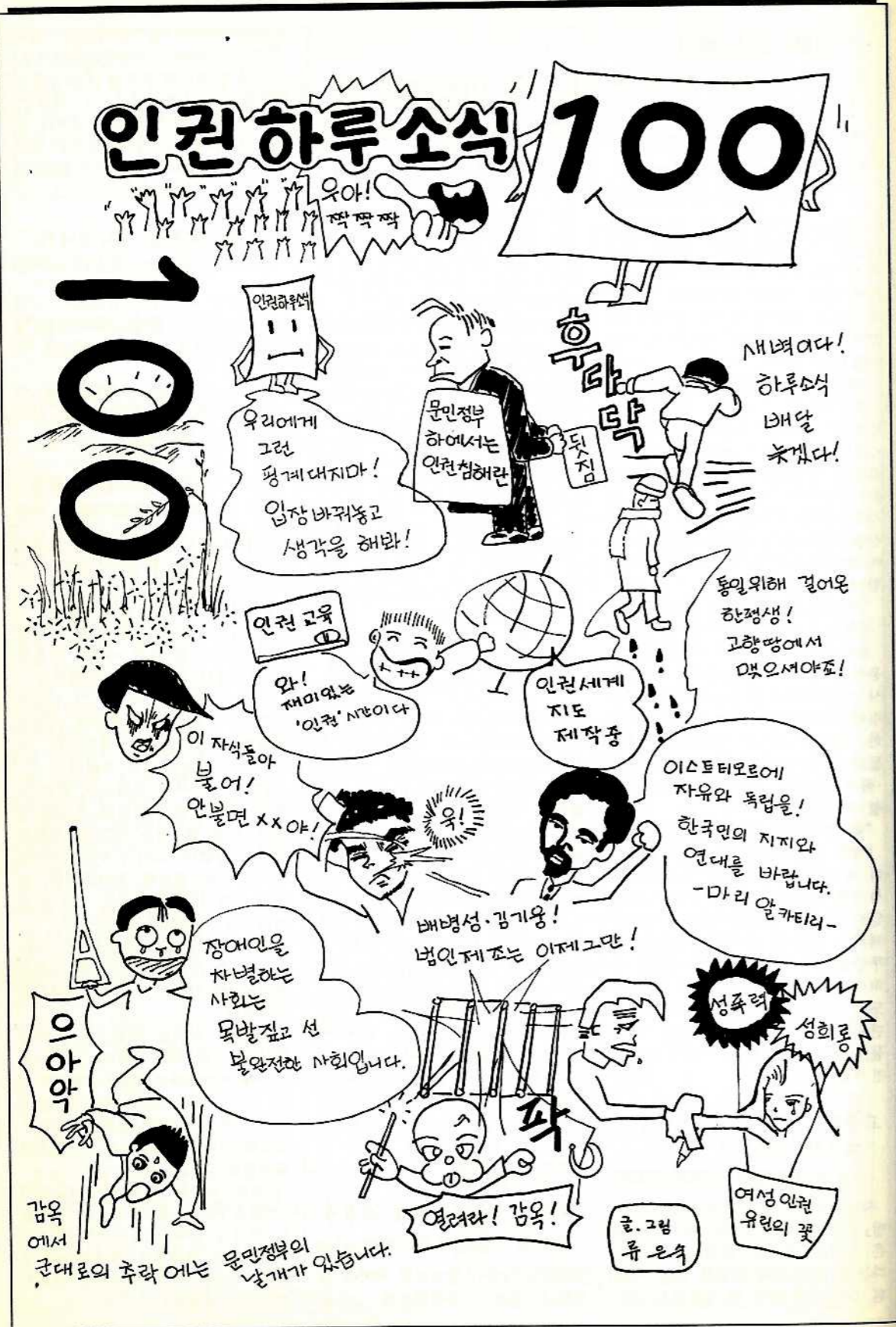
- 1면 · "재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
 - 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
- 2면 · 지령 1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 3면 · 만화로 본 <인권하루소식>

색 인 / 315

인권하루소식

준비 1호 - 24호

(8월 4일 - 9월 4일)



인권하루소식

색 인

(준비 1호 - 제100호)

색 인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 합본 1(준비 1호-100호)을 펴내면서 보다 더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주제별로 색인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색인작업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색인순서>

317 / 인권일반

318 / 법제

318 / 고문·고문후유증/가혹수사 - <고문·가혹수사> <김기웅순경사건> <김삼석씨 남매사건> <김춘도사망사건-배병성> <고문후유증>

320 / 경찰폭력/통신비밀

320 / 피의자/감옥

321 / 국가보안법

321 / 양심수/장기수/사상의 자유 - <장기수> <유서대필사건-강기훈> <노태훈씨사건> <민정현사건> <방북사건> <사회주의과학원사건> <pc통신사건> <자민통사건> <기타사건>

325 / 수배해제/사면·복권 - <6공 학생수배자>

325 / 양심선언/군/주한미군 - <양심수 군문제>

327 / 노동/산재/외국인노동자 - <전해부(수배·구속·해고노동자)> <원진레이온> <외국인노동자>

329 / 장애인

330 / 정신대

331 / 여성/성폭력·성희롱

332 / 국제 -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동티모르>

333 / 인권단체/개인 - <민가협>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불교 인권위원회>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인권하루소식>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문익환>

336 / 인권관련 정기간행물 색인

<범례>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93.10.5 / 111
; (93년 10월 5일자 기사, 『<인권하루소식> 합본 I』의 111쪽)

인권일반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93.10.5 / 111

·세계인권선언일 전후로 인권단체 다채롭게 행사 준비중/93.12.2 / 204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박원순/93. 12. 4 / 209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이석태/93.12.10 / 217

·조영래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93.12.10 / 218

- 문민적 정부 출범 첫째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행사 줄이어/93.12.11 / 219
-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93.12.11 / 221
-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한상범/ 93.12.15 / 228
-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93.12.28 / 245
- <인권하루소식> 선정 「93 인권 10대 뉴스」/93.12.29 / 247
- 민언협, 「93년 10대 왜곡·편파 보도사례」 선정/94.1.5 / 251
- 신년특집/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94.1.5 / 252
-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대한변협 성명서 내/94.1.19 / 278
- 대한변협 성명서/94.1.20 / 281
- <시민과 변호사> 창간, 서울변호사회/94.1.29 / 295

법제

-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93.11.19 / 183
- 형사법정운영표준례/93.11.19 / 184
- 헌법재판소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등/94.1.19 / 278
-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가능한가, 민변·한교협인권위 공청회/93.8.6 / 35
-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93.8.11 / 40
-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기초발제문(발췌)/93.8.11 / 41
- 변호사 자격 실질적 심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93.10.28 / 148
- 성명서: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93.10.28 / 149
-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중/93.11.5 / 164
-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93.11.18 / 181
- 인천 당직변호사제 실시, 인천지방변호사회/94.2.2 / 302

고문·고문후유증/가혹수사

<고문·가혹수사>

-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93.8.24 / 53
-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93.10.5 / 111
- 사후영장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93.11.25 / 191
-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담당검사 안종택등 고소, 방양균씨/93.12.14 / 224
- "사상문제로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물론이지."/93.12.23 / 241
- 말지 1월호: 고개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심(발췌)/93.12.23 / 241
- '고문용인 발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 요구, 민가협 등 8개 단체/93.12.29 / 246
-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은 고문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93.12.29 / 246
- 고 박종철씨 7주기 묘소참배, 9일 모란공원 묘지/94.1.11 / 261
-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대책 촉구, 민정련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94.1.11 / 261
- 교묘해진 고문현실-한국대표적 사례로 언급, AI 삐엘 씨네 사무총장/94.1.13 / 269
-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94.1.14 / 270

-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94.1.15 / 272

<김기웅순경사건>

- 성명서-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KNCC 인권위)/93.12.11 / 219
-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무죄판결」등 후속조치 없어/94.1.11 / 260
- MBC 'PD수첩',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94.1.11 / 260
- 김기웅 순경, 고소·고발장/94.1.11 / 262
- 김기웅 대법원에 탄원서/94.1.12 / 263
- '김기웅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이기택 민주당 대표등 /94.1.22 / 284
-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94.2.1 / 299

<김삼석씨 남매사건>

- 김삼석씨와 여동생 불법연행 당해, 8일 낮, 영장도 없고 연행장소도 밝히지 않아/93.9.9 / 81
- "김영삼 정부 왜 이러나", 8일 김삼석씨 남매 연행 소재파악도 안돼/93.9.10 / 83
- 성명서: 김삼석씨와 김은주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93.9.10 / 84
- 안기부,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씨 남매 8일 연행, 잠안재우기 여전/93.9.11 / 85
- 김삼석씨 남매 사건 설명회, 연락모임 가지기로/93.9.17 / 94
- 안기부, 김삼석씨 부인의 남편 구원활동 위협/93.9.18 / 95
- 국제 엠네스티의 김삼석씨 남매 사건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공문/93.9.18 / 96
-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씨 자해로 고발/93.9.23 / 101
- 엠네스티, 김삼석씨 남매 고문과 자백강요 우려 /93.9.25 / 105
- 국제 엠네스티의 김삼석씨 남매에 대한 2차 긴급구명 활동 공문/93.9.25 / 106
- 안기부, 김삼석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93.9.25 / 105
- 안기부 발표중 김삼석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93.9.25 / 106
- 검찰, 김삼석씨 송치후 수사 이유로 사실상 10일간 접견 금지/93.9.28 / 107
-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 담당검사에게 보낸 면회요청서/93.9.28 / 108
- 안기부, 김삼석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93.10.8 / 118
- 김삼석씨, 검찰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번, 검찰수사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93.10.9 / 121
- 김삼석씨 성고문사건, 국내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AI 우려 표시/93.10.13 / 125
- 김삼석씨 성추행 안기부원 고발, 부인 윤미향씨, 김삼석씨 안기부원 이름 밝혀/93.10.21 / 137
- 안기부원 고소(고발)장/93.10.21 / 138
-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대책위」 기자회견/93.10.29 / 150
- 「김삼석·김은주 대책위」와 「남누리영상」 제작부장의 증언내용 요약/93.10.29 / 151
- 「간첩죄 기소」 김삼석씨 유명단체 대표 조작 의혹/93.10.30 / 152
- 가혹행위·성추행 안기부원 수사촉구 서한보내, 윤미향씨/93.11.9 / 169
- 김삼석씨 고문 고발인 조사, 서울지검/93.12.14 / 224
- 김삼석 남매 구원회 결성, 10일 일본 동경/93.12.15 / 227
-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김삼석·김은주씨 첫 공판/93.12.18 / 233
- 김삼석·김은주씨 모두진술서/93.12.18 / 234
- 「말」 「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김은주 2차 공판/94.1.8 / 258

·검찰 신문내용(요약 발췌)/94.1.8 / 259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94.1.22 / 284

·김삼석 반대신문(일부 내용)/94.1.22 / 285

<김춘도사망사건-배병성>

·배병성씨 보석신청/93.8.17 / 46

·배병성군 부모등 수배/93.8.26 / 56

·3차공판, 경찰 3명 증인신문/93.10.30 / 153

·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5차공판 부검의 증언/93.12.4 / 208

·검찰, 헛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93.12.11 / 220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93.12.21 / 236

<고문후유증>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식/93.10.14 / 127

·문국진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및 의사 소견서/93.10.14 / 128

·5공치하 안기부 고문피해자 최영미씨 가족, 대통령에게 치료요구 탄원서 내/93.10.16 / 131

·최영미씨 가족 탄원서/93.10.16 / 132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93.11.18 / 181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93.11.19 / 183

·고문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국회 청원/94.1.5 / 251

·고문후유증 사례 1-최영미씨/94.1.15 / 273

·고문후유증 사례 2-김복영씨/94.1.19 / 279

·고문후유증 사례 3-김종경씨/94.1.26 / 290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씨 손배소송, 수원지법/94.1.26 / 289

·고문피해자 보상대책 청원, 26일 법사위에 회부/94.1.28 / 293

경찰폭력/통신비밀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진압, 경찰청장 "인권보호하겠다"고 하던 날도/93.10.28 / 148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김귀정씨 손해배상 청구/93.9.24 / 103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결의대회/93.10.26 / 144

·경찰, 23일 원진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무차별 폭행/93.10.27 / 145

·신내택지구 철거민 찬바람에 내몰려/93.9.24 / 104

·연초부터 철거나서 주민들과 충돌, 신정5지구 재개발지역, 경찰 주민들만 연행/94.1.13 / 268

<통신비밀>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집 도청, 강수림·전노협 밝혀/93.8.20 / 51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 '검열' 제한/93.12.3 / 206

·통신비밀보호법(요약)/93.12.3 / 207

피의자/감옥

·대전교도소앞 밤샘농성 벌여, 옥중단식대표자 면담요청 소극거부에 항의/93.8.6 / 35

·대전교도소, 농성단에 폭력행사, 손병선씨 딸 방패에 머리 찍혀 부상/93.8.7 / 37

·대전교도소장 폭력행위 인정, 8월 6일, 부상자 치료 책임지기로/93.8.10 / 38

·국순단 대전교도소 시위로 6명 구속/93.8.14 / 45

·교도소 곳곳에서 옥중투쟁, 공주·홍성·춘천교도소등/93.9.21 / 97

·옥군교도소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 등 청원/93.10.23 / 141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 청구/93.12.7 / 211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청구(전문)/93.12.7 / 212

·"교도소장에게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영등포교도소/94.2.1 / 299

·영등포교도소 인권유린 항의집회, 교도소 앞/94.2.2 / 302

·영등포교도소 앞, '소장 사과·징벌 해제' 농성중, /94.2.3 / 309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측 공개사과도/94.2.4 / 312

·"재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94.2.4 / 312

국가보안법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명동성당 /93.8.4 / 31

·민가협·범추분 명동성당 농성 속보, 가두선전 및 장기수 한마당 가져/93.8.5 / 33

·한총련 구국대단식 돌입, 8월 4일부터 13일까지/93.8.5 / 33

·국보철폐 시민한마당 열려, 12일 6시 연대 노천극장/93.8.12 / 42

·국보철폐 한마당 장소 옮겨 진행/93.8.13 / 44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범민족대회 개막식 하루 연기/93.8.13 / 44

·범민족대회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일부 게재)/93.8.13 / 44

·9일, 국순단 대전교도소 시위로 6명 구속/93.8.14 / 45

·AI,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보법·노동쟁의법 개정, 양심수 석방 요구/93.8.17 / 46

·앰네스티 뉴스, 한국: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93.8.17 / 47

·캐네디인권센터,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93.8.24 / 53

·캐네디 인권센터의 서한/93.8.24 / 53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영장없는 체포·잠안재우기에 우려/93.9.18 / 95

·교도소 곳곳에서 옥중투쟁, 공주·홍성·춘천교도소등/93.9.21 / 97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조용환 변호사/93.10.30 / 152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민변·전국연합 토론회/93.11.25 / 191

·국가안전기획부법 폐지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93.11.25 / 192

·반민주·반통일 악법철폐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기장총회 주최로/93.12.3 / 206

양심수/장기수/사상의 자유

<장기수>

·장익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유엔 구금실무위 규정/93.8.28 / 60

·장익균, 황대권·김성만씨 사건개요/93.8.28 / 61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 결정문/93.8.31 / 63

- 연극 「완전한 만남」 공연/93.9.7 / 74
- AI, 수십명의 장기수 재심 촉구/93.10.13 / 125
- 엠네스티, 한국:수십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93.10.13 / 126
- 김선명씨 44년째 감옥살이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93.12.24 / 243
-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언제까지, '민가협 목요집회' 새해 계속/94.1.7 / 256
- AI도 김선명씨 석방 요구/94.1.7 / 256
- 40년 감옥살이 안학섭씨 석방 요구, 국제엠네스티, 양심수 선정 전세계에 호소/94.2.2 / 302
- "이장형·강희철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93.11.9 / 168
- 기자회견문:이장형·강희철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93.11.9 / 169
- 북한적십자회, 한국적십자사에 출소 장기수 김국홍·함세환노인 송환 요구/93.12.9 / 215
-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KNCC 인권위/94.1.12 / 263
- 통일원 김인서·함세환씨 방북 긍정 검토, "북한 동진호 선원송환 성의 보일 경우"/94.1.26 / 289
- 김국홍씨등 송환 재촉구, 추진본부/94.1.28 / 293
- 성순회씨(손병선씨 부인) 투병끝에 사망, 수배 중 지병 악화로/93.8.17 / 46
- "손병선씨 일시 석방 불투명"/93.8.18 / 48
- "대법원, 손병선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호외/93.8.18 / 49
-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씨 장례식 참석 불허/93.8.19 / 50
- 손병선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93.8.20 / 51
- 손병선씨 단식마쳐/93.8.21 / 52
- 대법원, 김낙중씨 무기징역 확정/93.10.12 / 123
- '김낙중씨 간첩단사건' 노중선씨 2심 선고공판 법정구속/93.10.16 / 131
- 심금섭씨 부인 위독,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93.10.8 / 119
- 심금섭씨 구속집행정지 신청·기각, 부인 김복희씨 사망/93.10.9 / 121
- <유서대필사건-강기훈>
- 「유서사건 총자료집」 판매중/93.8.4 / 131
- 강기훈씨, 검찰 국감장 증인/93.10.12 / 122
- 홍성은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93.10.12 / 122
- 홍성은씨 기자회견문(전문)/93.10.12 / 123
- '강기훈 무죄석방 공대위' 논평/93.10.12 / 124
- KNCC 인권위, 대통령에게 강기훈씨 무죄석방 탄원/93.10.14 / 127
- '문민적 사법부' sbs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시켜/93.10.26 / 143
- 강기훈공대위·민가협, 항의성명/93.10.26 / 143
- 강기훈공대위 성명서, 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93.10.26 / 144
- sbs '강기훈...' 방영취소,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93.10.27 / 145
- 민변 성명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93.10.27 / 147
- sbs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 계기로, PC통해 공개토론 진행/93.11.6 / 166
- Hitel,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내용(발췌)/93.11.6 / 167
- 제작진과 교약제작국 PD 성명서 내 불방에 항의/93.11.6 / 166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불방에 대한 입장, 교양PD, 제작진 일동/93.11.6 / 167

- '강기훈사건' 방영 불투명, sbs 시청자위원회 심의 안해/93.11.12 / 174
- <노태훈씨사건>
- 노태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93.8.4 / 32
- 구속적부심, 8월 5일/93.8.5 / 33
- 구속적부심 기각/93.8.6 / 36
- 노태훈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현 변호사 출두/93.8.6 / 35
- 노태훈 석방요구 잇따라/93.8.11 / 40
-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씨 기소/93.8.14 / 45
- 일본변호사 41명등 석방촉구/93.8.14 / 45
- 노태훈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법조인·문화인등 187명/93.9.15 / 89
- 성명서:노태훈씨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계·법조계·학계 등/93.9.15 / 90
- 검찰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씨에게 2년 구형/93.10.7 / 116
-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씨 석방요구 김영삼대통령에게 서한/93.10.9 / 120
- 노태훈씨 1심선고, 집유로 나와/93.10.21 / 137
-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 청구/93.12.7 / 211
-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청구(전문)/93.12.7 / 212
- <민정련사건>
- 원주지부 회원 9명 연행, 영장제시 없어, 연행사유 및 장소 안알려/93.8.27 / 58
- 영장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등 13명 강제연행/93.8.28 / 60
- 무더기 구속·짜 맞추기 수사 여건,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93.8.31 / 62
- 강압수사 항의 단식중 탈진, 민정련 회원 공인표씨/93.9.2 / 65
- 용인지부장 경찰에 연행/93.9.16 / 91
- 용인지부장 양춘모씨 석방/93.9.17 / 94
- 경찰, 민정련 회원 12명 연행/93.11.2 / 157
- 연행된 민정련 회원 전원 풀려나/93.11.3 / 160
- 광주지부 회원등 16명 연행/93.12.16 / 229
- 광주지부 회원등 13명 구속/93.12.18 / 233
- 광주지부 회원 2명 또 연행/94.1.7 / 256
-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대책 촉구, 민정련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94.1.11 / 261
- <방북사건>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 5일 결성/93.8.4 / 31
- 「황석영 대책위」 결성, 민예총 강당/93.8.6 / 35
-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 성명서/93.8.6 / 36
- 황석영씨 3회 공판 /93.8.17 / 46
- 황석영씨 4회공판, 변호인 반대신문/93.8.31 / 63
- 방북(시도)인사공판, 황석영·박동수/93.9.21 / 97
- 박동수씨의 최후진술/93.9.21 / 98
- 박동수씨 실행선고/93.10.7 / 117

- 황석영 결심공판, 무기징역 구형/93.10.12 / 123
- 무기구형 항의성명서 발표/93.10.13 / 125
- 성명서: 공안당국의 구대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93.10.13 / 126
- AI, "황석영씨 석방여부 인권개선 의지 시험대"/93.10.16 / 131
- 검찰 황석영씨 공소장 변경/93.10.22 / 139
- 황석영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업격해석' 판결/93.10.26 / 143
-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 공판/94.1.25 / 286

<사회주의과학원사건>

-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학단협 등 5개 단체/93.8.5 / 34
- 조국교수 석방 AI 요구/93.8.10 / 38
- 국제 앰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93.8.10 / 39
- 조국교수 50일만에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93.8.12 / 42
- '사회주의 과학원' 반국가단체로 규정, 황주석·조국씨 등 기소/93.8.13 / 43
- 조국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회견/93.8.27 / 59
-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씨 등 모두진술/93.9.11 / 85
- 자료: "사과원" 사건의 진실/93.9.11 / 86
-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사과원' 사건공판/93.10.9 / 121
- '사과원' 사건 결심공판, 6년에서 2년까지 구형/93.11.13 / 176
- 연구단체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집유/93.11.27 / 195

<pc통신사건>

- 안기부 게시물 검열후 신상자료 요구, 이용자들 '통신의 자유' 침해주장 확산/93.11.17 / 179
-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93.11.17 / 180
-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93.11.19 / 183
-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씨 끝내 연행,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93.12.8 / 213
- 김형열씨 구속, pc통신 관련 최초/93.12.9 / 215
- pc통신 최초로 기소, 국보법 위반/93.12.17 / 231
- AI, 김형열씨 양심수 선정/94.1.6 / 253

<자민통사건>

- 수배자 김석씨 연행/93.10.7 / 117
- 수배자 허탁·박영재씨 남영동으로/93.11.2 / 157

<기타사건>

- 대구·경북 총학생회 연합의장 권혁명씨 불잡혀, '한총련 진화회담' 관련/93.9.18 / 95
- 사노맹 관련 문영찬씨 구형 7년/93.10.21 / 137
- 사노맹 관련 10년 구형 백성기씨, 3년 선고/93.11.3 / 160
- 문영찬씨 2년 6개월 선고/93.11.4 / 162
- 사노맹 활동관련 대학생 구속/93.11.30 / 197
- 핵사노 사건 또다시 9명 기소/93.12.8 / 213
- 미허가 북한 전화통화 국보법 구속, 15일 경찰청/94.1.18 / 274

수배해제/사면·복권

- '8·15 특사'에 분노, 일본 한국관련 인권단체/93.8.17 / 47
- "생색내기식 과거청산" 전혜두·민가협 10·25 수배조치 한계 지적/93.10.27 / 145
- 김선명씨 44년째 감옥살이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93.12.24 / 243
- 성명(발췌)-민주당 인권위원장 강수림/93.12.24 / 243
- 발표문(발췌)-법무부,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대상자 명단/93.12.24 / 244
- 성명-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민가협/93.12.24 / 243
- 성명서: 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KNCC 인권위/93.12.28 / 245

<6공 학생수배자>

-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93.8.13 / 43
-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93.8.13 / 44
- 정치수배자 대책위, 총장 등 15여명 서명받아/93.8.24 / 53
-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 12명 새로 합류, 28일 '가족 상봉의 날' /93.8.26 / 57
- 학생 수배자들, 가족들과 상봉, 연세대에서/93.8.31 / 63
- '6공 정치수배 해제는 과거청산의 문제', 수배자 대책위, 악법철폐등 요구/93.9.3 / 67
- 수배해제 촉구대회, 오늘 연세대 광장에서/93.9.7 / 73
- 과거 잔재청산 및 국민화합 차원 수배해제 필요, 7일 연세대 민주광장/93.9.8 / 79
- 성명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93.9.8 / 80
- 정치수배자 투쟁기금 마련 일일주점, 정치수배자들의 친구·선후배/93.9.15 / 90
- '창살없는 감옥생활', 6공 정치수배해제 촉구, 불교인권위·한교협인권위/93.9.21 / 97
- "반성문 요구하는 자진출두에는 응하지 않을터", 수배자 대책위 /93.11.2 / 157
- 6공 정치수배자 기자회견, 자진출두 않기로, 3일 86일간 농성 풀기로/93.11.3 / 160

양심선언/군/주한미군

<양심선언>

- 양심선언 군인전경대책위 결성키로/93.8.7 / 37
- 「양심선언 군인전경대책위」 발족/93.8.10 / 38
-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일부 게재) /93.8.10 / 39
-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93.8.17 / 47
-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93.8.18 / 48
- 강태중 일경 첫 재판에서 2년구형/93.8.21 / 52
- 양심선언 군인·전경 재판 열려/93.8.27 / 58
- 이종수 일경 재판연기/93.8.28 / 61
- 이동익 일병 징역 2년 선고/93.9.1 / 64
- 고대성 일병 3년 선고/93.9.2 / 65
-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 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93.9.3 / 67
- 출감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김대영 탄원서 제출/93.9.4 / 68

- 김대영 의경 탄원서(발췌)/93.9.4 / 69
- 이문옥 감사관 무죄판결/93.9.7 / 74
- 2년 구형 강태중 일경 합의부 이송/93.9.8 / 79
- 이종수 전경 3년 구형/93.9.11 / 85
-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 양심선언 군경 중 첫 집유/93.9.23 / 101
- 양심선언전경에 '재복무명령', 이지문 중위 등 파면취소 탄원/93.10.8 / 119
-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국감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93.10.15 / 129
-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씨 첫 공판 열려/93.10.20 / 135
- 박석진 일경 1년6월 실행선고/93.10.23 / 141
-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93.10.23 / 142
- 육군교도소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 등 청원/93.10.23 / 141
- 양심선언 이재원 일경에 3년 구형/93.10.30 / 153
- 세번 '탈영병'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조정희 일병 재판도/93.11.24 / 189
-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찬양/93.12.1 / 201
- 김대영·박영생 1년6월 선고/93.12.8 / 213
- 조정희 일병 국보법에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군사법원/94.1.14 / 270
-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94.1.21 / 283
-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94.1.27 / 291
- "진정한 탈영병은 누구인가", 박석진 항소심 최후진술/94.1.28 / 293
- 박석진 일경 "교도소장에게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영등포교도소/94.2.1 / 299
- 영등포교도소 인권유린 항의집회, 교도소 앞/94.2.2 / 302
- 영등포교도소 앞, '소장 사과·징벌 해제' 농성중, /94.2.3 / 309
- 박 일경 징벌 풀려, 공개사과도/94.2.4 / 312

<주한미군>

- 윤금이 공대위 소식/93.8.4 / 31
- 미군범죄 근절대책 촉구, 미 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93.8.6 / 36
- 김국혜씨 폭행미군, 30일 선고/93.8.25 / 55
- 법원, 김국혜씨 폭행범 존 로저 공판재개하기로/93.9.8 / 79
- 재판부, 김국혜씨 증언듣기로/93.9.9 / 82
- 주한미군 범죄 근절 위한 상설기구 결성하기로/93.9.9 / 82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안내/93.9.16 / 91
-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부분 추가기소 안해/93.10.7 / 117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93.10.27 / 146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선언문/93.10.27 / 147
- 윤금이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93.10.29 / 151
- 오늘, 윤금이씨 1주기 추모제 및 민족자주를 위한 시민의 밤 열려/93.10.30 / 153
-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93.11.19 / 183
- 윤금이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객들 항의/93.12.17 / 231
-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 운동/93.12.17 / 231

-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택시기사들 엄중처벌 약속받고 해산/93.12.21 / 237
- 검찰, 윤금이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93.12.22 / 238
- '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94.1.7 / 257
-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94.1.20 / 281

<양심수 군문제>

-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93.10.19 / 133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93.10.19 / 134
- 양심수 복역자 병무청에 징집영장 반납키로, 23일 11시 노태술 등 5인/93.10.23 / 141
-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93.10.23 / 142
- 병무청, 출소양심수 징집연기 의사 밝혀/93.10.29 / 151
- 5·6공 강제징집 희생자 위령제 열려, 양군모 주최/93.11.3 / 160
- 6공 수행생활 양심수, 군문제해결 촉구, 서울등 전국 7곳 병무청 앞 시위/93.11.10 / 170
-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사 농성 시작, 15일 민자당사 앞 집회도 가져/93.11.16 / 178
- 양군모 서명운동, 여야 국회의원 131명 교수 1100여명 넘어서/93.11.23 / 187
- 수행생활 제자들의 군문제 해결촉구 교수단 기자회견/93.12.1 / 201
- 부당징집 폐지 항의방문, 양군모 9일까지 국방부앞/93.12.7 / 211
- 국방부 인사과장, 시국관련 수행자 보충역편입 거부, 양군모 반발/93.12.9 / 215
- 시국관련 수행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입위 청원받아들여 /93.12.10 / 218
-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국방부 앞 양군모 등 500여명 시위/93.12.15 / 227
- 양심수 군문제 청원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93.12.18 / 233
- 양군모 81일째 농성중, 본회의 통과 국방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94.1.6 / 253
-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투쟁/94.1.8 / 258
-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기독교 성직자 1,517인/94.1.25 / 286
- 양심수 사회복귀 보장 촉구, 양군모 대표 병무청장 면담도/94.1.29 / 295

노동/산재/외국인노동자

-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노·사·정 공동합의문'에 반대/93.11.11 / 172
-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등/93.11.20 / 185
- 전노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추가 제소(NO.1629) 내용요약/93.11.20 / 186
-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93.11.20 / 186
- 노동법 개정 홍보, 전노대/93.11.23 / 187
- '소사장제' 반대 단식농성, '경기유리' 노조위원장/94.1.13 / 268
- ILO '93 노동통계연감', 한국 노동시간 '국제적' 수준/94.1.21 / 282
- ILO '93 노동통계연감'중 중대재해율, 주당 노동시간/94.1.21 / 283
- 열악한 노동조건 비판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 "완전월급제" 등 주장/94.1.25 / 286
- 택시노련 완전월급제 실시 요구, 26일 대의원대회, 사납금 폐지도/94.1.28 / 293

<전해투(수배·구속·해고노동자)>

- 수배·해고 노동자 94일째 농성중, 민주당사에서/93.9.1 / 64

-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특별법 필요', 11일, 전해투 대회/93.9.14 / 87
-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청원서/93.9.16 / 92
- 전해투 투쟁기금 마련 시민한마당, 26일 서울대에서/93.9.16 / 91
- 반인륜적 행위 이제는 그만, 해고노동자 부모, 아들 복직 안되자 자살/93.9.17 / 93
- 배상봉씨(배일도씨 아버지)의 자살에 대한 전해투의 성명서/93.9.17 / 94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121일째 농성중/93.9.28 /
- 단식중 노동자 2명 병원 후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민주당사 단식 26일째/93.10.6 / 114
-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또 탈진/93.10.7 / 117
- 전해투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농성 돌입/93.10.9 / 120
-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5차 결의대회/93.10.12 / 123
- 문익환목사 등, 민주당·노동부 등에 해고자 문제해결 촉구/93.10.13 / 125
-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후 해산, 15·18일경 노동부장관과 면담하기로/93.10.14 / 127
-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93.10.19 / 133
-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93.10.19 / 134
- 성명서:정부의 10·25 수배해제 조치는 과거의 악순환을 답습하는 것/93.10.27 / 145
- 26일 전해투 연행자 및 상황일지/93.10.27 / 146
-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전해투 지원대책위/93.10.29 / 151
- “복직되면 재대조치 하겠다”, 병무청 병역특례해고자에 대한 입장/93.11.12 / 174
-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93.11.19 / 183
-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93.11.25 / 191
- 해고노동자 또 폭행 당해, 26일 대림자동차/93.11.27 / 195
- 병역특례문제 공청회, 전해투 28일로 연기/94.1.21 / 283
- “정부, 복직약속 지켜야”, 「해고자 복직...공청회」/94.1.29 / 295

<원진레이온>

- 정부, “직업병 외면, 땅투기 부추켜”, 원진레이온 더 용도변경/93.8.21 / 52
- 원진, 대책없는 파산 결정 거부 농성 돌입, 명동성당, 24일부터/93.8.24 / 53
- ‘원진’ 350명 명동성당 농성 돌입, 24일 고용보장·직업병 대책 마련요구 /93.8.25 / 55
- 원진실상 바로알리기 행진 명동성당에서 탑골공원까지/93.8.27 / 58
- 원진레이온 결의대회 오늘 3시 열려/93.8.28 / 61
- ‘원진특별법’ 제정 강력요구, 원진 노동자, 오늘 명동성당 2차 농성 돌입/93.9.14 / 87
-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93.9.15 / 89
- 원진 노동자, 청와대 면담 무산, 명동성당 2차 농성 속보/93.9.16 / 91
- 명동성당 농성, 원진레이온 속보/93.9.17 / 93
- ‘원진직업병’ 화형식, 원진특별법 제정 요구대회/93.9.21 / 97
- ‘원진’ 정치적 해결 촉구, 청와대 뒤 인왕산에서/93.9.23 / 101
- 정부의 원진문제 해결자세 규탄, 25일 명동성당 집회/93.9.28 / 107
- 성명서:김영삼 정부는 원진직업병 문제 즉각 해결하라/93.9.28 / 108
- 원진노동자, 국회의원 일대일 호소하기로/93.10.6 / 115
-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대표 증인,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93.10.22 / 139

-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법률(안)/93.10.22 / 139
-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결의대회/93.10.26 / 144
- 경찰, 23일 원진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무차별 폭행/93.10.27 / 145
- 원진비대위, 종로서장 폭력혐의로 고발/93.10.30 / 152
-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93.11.4 / 162
-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양길승)/93.11.4 / 163
- “미완의 원진합의서”, 9일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합의/93.11.10 / 170
- 원진합의서(전문)/93.11.10 / 171
- 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투자기관에 우선 채용키로, 폐업대책 당정협약에서/93.11.25 / 191
- 원진레이온 파산선고, 30일 의정부지원/93.12.2 / 204
- 원진폐업투쟁 보고대회, 11일 구리민방위교육장/93.12.11 / 219
- ‘원진노동자 후원회’ 결성, 13일 일본/93.12.14 / 224
- ‘원진 직업병’ 올해 들어서도 8명, 4개 환자단체 29일 통합/94.1.29 / 295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21일부터 사흘동안/93.9.22 / 99
-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93.9.22 / 100
- ‘외국인노동자 보호 필요’, 한·일 연대회의 이틀째/93.9.23 / 101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93.9.23 / 102
- ‘외국인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일 연대회의 공동성명/93.9.24 / 103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공동성명서/93.9.24 / 103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93.11.27 / 195
-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문/93.11.27 / 196
- “외국인 노동자도 기계는 아니다”, 13명 경실련서 10일부터 농성중/94.1.13 / 268
-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94.1.13 / 269
-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장당/94.1.27 / 291

장애인

-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 가평군 군청직원·경찰 장애인 무차별 구타/93.8.26 / 56
- 「장애인 폭행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93.8.26 / 57
-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절실하다”,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93.9.10 / 84
- 폭행당한 장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의 공정성 의문/93.9.17 / 93
- ‘장애인 공대위’ 김성재 위원장, 연구차 외국으로 출장/93.10.5 / 111
-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 단식돌입/93.10.16 / 131
-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93.10.16 / 132
-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93.11.5 / 165
-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93.11.6 / 166
-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93.11.9 / 168
-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 주장, 전특련 민주당 단식농성 8일째/93.11.11 / 172

- 전특련 민주당 농성 풀어/93.11.13 / 176
-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숍,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93.11.20 / 185
-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93.11.26 / 193
-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 윤점룡교수 진술내용/93.11.26 / 194
-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93.11.27 / 195
-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93.12.1 / 201
-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93.12.3 / 206
- 「장애인복지정책」 심포지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93.12.14 / 224
-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조홍식/93.12.14 / 225
- ‘빈곤과 장애’ 토론회, 15일 장애인 실태조사에 앞서/93.12.15 / 227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통과/93.12.16 / 229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93.12.16 / 230
- 지체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93.12.21 / 237
-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93.12.23 / 242
- 장애인잡지 <열린지평> 94년 봄호(2호) 발간/94.1.22 / 284
- 「인권운동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장애인 복지실태에 관한 이해(요약)/94.1.28 / 294

정신대

- ‘위안부’ 문제 정부입장 표명 요구, 정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93.8.11 / 40
- 일본정부의 강제 중군위안부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정대협 입장(요약)/93.8.11 / 41
- ‘위안부’ 진상조사 배상추구 집회,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93.8.12 / 42
- 중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93.8.13 / 43
-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93.8.27 / 58
- 유엔 인권소위, 결의안-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93.8.27 / 59
- 정부, 정신대 ‘배상·보상 요구 않기로’ 재천명/93.9.2 / 65
- 외무부의 정대협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전문)/93.9.2 / 66
- 외무부 답신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93.9.2 / 66
- 「정신대 진상규명위원회」 발족-8월 25일, 강만길 교수 4등 학계중심으로/93.9.8 / 80
- 정대협, 사회당 위원장에게 ‘진상규명’ 노력요구/93.9.9 / 82
- 정대협 ‘수요시위’/93.9.15 / 89
- 정대협 북한 접촉승인 요청, 전후문제 처리 토론회 참가 위해/93.10.8 / 119
- 정대협 대표단 20일 출국/93.10.20 / 135
-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93.10.21 / 137
-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93.10.21 / 138
- 강제중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93.10.30 / 153
- 제2차 ‘강제중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93.10.30 / 153
- 정대협 대표 5일 평양으로, 전후처리 국제토론회 참석차/93.11.5 / 165
-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93.11.6 / 167

-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93.11.9 / 169
- 『정신대 자료집 IV』 발간/93.11.11 / 173
- 미하원의원 24명 일본에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서한/93.11.12 / 174
- 일본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한 미 하원의원 명단/93.11.12 / 175
- 정대협 대표 평양토론회 참가 기자회견/93.11.13 / 176
-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 열려, 형사적 책임과 배상 등 논의/93.12.22 / 238
-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93.12.22 / 239
-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법적 책임 이행할 때”/93.12.23 / 242
-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93.12.23 / 242
- “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제103차 수요시위/94.1.20 / 280
- 일본 검찰에 ‘군 위안부’ 책임자 고소·고발장 낼듯, 정대협/94.1.29 / 295
- “국제화는 정신대문제 올바른 해결로부터”, 2일 105차 수요시위/94.2.3 / 309

여성/성폭력·성희롱

- 여성운동의 장충동 시대 개막, 17일 여성 평화의 집 개관식/93.9.18 / 95
-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94.1.18 / 274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중점, ‘여연’ 정기총회, 여성의 권익 향상 위해/94.2.2 / 302
- 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94.2.4 / 312

<성폭력·성희롱>

- 여성단체 한 건물로 이사, ‘여성 평화의 집’ 마련/93.8.12 / 42
-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93.10.20 / 135
- 공동성명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93.10.20 / 136
-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93.10.20 / 136
-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93.10.26 / 143
-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설문조사 결과/93.10.29 / 150
- 억울한 ‘살인범’ 이형자씨 무죄석방 촉구, 부산/93.11.5 / 164
-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93.11.5 / 165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총장에 항의서한 보내/93.11.6 / 167
- 이형자씨 항소심 선고공판, 11일 10시 부산고법/93.11.9 / 168
- 부산고법 이형자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93.11.12 / 174
- 이형자씨 변론요지서(일부 게재)/93.11.12 / 175
- 어린이 성폭력 사회적 관심 필요, 성폭력 예방교육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93.11.23 / 187
-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행,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최영애/93.11.23 / 188
- 성희롱사건 첫 법정공방 시작/93.11.24 / 189
- 서울대 교수 성희롱사건 경과/93.11.24 / 190
- 직장내 성희롱문제 토론, ‘성희롱공대위’ 주최/93.12.7 / 211
-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93.12.8 / 213
-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이종걸/93.12.8 / 214

- 「성폭력위기센터」 문열어, 성폭력상담소/93.12.14 / 224
-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93.12.21 / 23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93.12.21 / 237
- 서울대교수 성희롱사건 증인신문, 2차공판 “성희롱 장면 목격했다”/93.12.22 / 238
- 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 제11회 여성동아대상 수상/94.1.13 / 268
- sbs ‘투맨쇼’ 15일 성희롱 토론코너 마련/94.1.15 / 272
-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94.1.18 / 274
- 문민적 정부의 여성정책 진단, ‘여연’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개최/94.1.21 / 282
- 「한국여성의 전화」 인천에 지부 개원/94.1.26 / 289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94.2.2 / 302

국제

- 케네디인권센터,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93.8.24 / 53
- 케네디 인권센터의 서한/93.8.24 / 54
-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93.8.27 / 58
- 유엔 인권소위, 결의안-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93.8.27 / 59
- 캐나다 인권단체 ICHRDD대표, KONUCH 대표단 만날 예정/93.10.15 / 129
-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CHRDD, 캐나다) 소개/93.10.15 / 130
-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등/93.11.20 / 185
- 전노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추가 제소(NO. 1629) 내용요약/93.11.20 / 186
-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93.11.20 / 186
- 아·태지역 인권단체 국제회의 2월에 열려/94.1.20 / 281
- 아·태지역 주요민간단체들 상호협력 체제 발전할 듯/94.1.20 / 281
- ILO 『93 노동통계연감』, 한국 노동시간 ‘국제적’ 수준/94.1.21 / 282
- ILO 『93 노동통계연감』중 중대재해율, 주당 노동시간/94.1.21 / 283
- 유엔 세계여성대회 소식(1), 95년 9월 4-15일 북경/94.1.27 / 292
-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이집트 카이로, 9월 5일부터 13일부터/94.1.27 / 292
- 「제5회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 진행중, 시드니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94.1.27 / 292
- KONUCH 대표단, 세계인권대회 후속회의 참가, 2-3일 방콕/94.2.2 / 302
-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1월 31일-3월 11일, 제네바/94.2.3 / 309
-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레세라노/94.2.3 / 310

<인권고등판무관>

-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 9일 결의안 초안 작성/93.11.18 / 181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93.11.18 / 182
-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 신설 결의문/94.1.7 / 257

<국제앰네스티>

- 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93.8.5 / 33
- AI,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보법·노동쟁의법 개정, 양심수 석방 요구/93.8.17 / 46

- 앰네스티 뉴스, 한국: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93.8.17 / 47
- AI 제21차 국제대의원총회 열려, 보스턴 8월 6-14일/93.8.19 / 50
-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영장없는 체포·잠안재우기에 우려/93.9.18 / 95
- AI 아시아 조사관 방한, 정기방문차 17일간 일정/93.11.2 / 157
-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구속자 가족 등 만나/93.11.13 / 176
- AI 소개, 전세계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 긴급구명활동이란?/93.11.13 / 177
-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태 청산의지 부족, AI 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93.11.16 / 178
- 새정부 출범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AI 국내 첫 기자회견/93.11.17 / 179
-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93.12.4 / 208
- AI 사형집행 중지·사형제도 폐지 요구/93.12.10 / 218
-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93.12.10 / 218
- 교묘해진 고문현실-한국 대표적 사례로 언급, AI 피엘 씨네 사무총장/94.1.13 / 269
- 정치적 살인·실종반대 캠페인 AI한국지부/94.1.20 / 281
- 앰네스티 한국지부 집행위/94.1.22 / 284
-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94.1.27 / 291
- 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94.2.1 / 299
- 국제앰네스티, 미국내 사형집행 중단 요구/94.2.3 / 311

<동티모르>

-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씨 방한, 전국연합 인권위 초청/93.11.24 / 189
- 이스트 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93.11.24 / 190
- 외무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면담 거절/93.11.26 / 193
- 고립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씨 강연회/93.11.30 / 197
-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93.11.30 / 198
-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권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93.12.1 / 201

인권단체/개인

- 유엔세계인권대회 평가회 열려/93.8.28 / 61
- 인권단체, 강수림의원과 인권현안 간담회 가져/93.10.29 / 151
-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93.11.9 / 169
- 단체탐방/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93.10.15 / 130
- 단체탐방 2/불교인권위원회/93.11.3 / 161
- 단체탐방 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93.11.11 / 173
- 단체탐방 4/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93.11.18 / 182
- 단체탐방 5/한국여성의 전화/93.12.2 / 205
- 단체탐방 6/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93.12.9 / 216
- 단체탐방 7/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93.12.17 / 232
- 단체탐방 8/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94.1.14 / 271
- 단체탐방 9/노동과 건강연구회/94.1.29 / 296

<민가협>

- 「민가협」 수련회/93.8.25 / 55
- 「민가협」 23일 첫 목요일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93.9.24 / 103
-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석방요구, 민가협 2차 목요일시위/93.10.8 / 118
- 민가협 '목요일집회' 가져/93.10.15 / 129
- 강기훈공대위·민가협, 항의성명/93.10.26 / 143
- "생색내기식 과거청산" 전해투·민가협 10·25 수배조치 한계 지적/93.10.27 / 145
-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구속하라", 인재근·박충렬씨 증언/93.11.5 / 164
- 민가협 7차 목요일집회,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요구 /93.11.12 / 174
- 민가협,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93.11.26 / 193
- 민가협 열번째 목요일집회, 오늘 2시 거리음악제 마련/93.12.2 / 204
-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민가협 10차 목요일집회/93.12.3 / 206
-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93.12.14 / 224
- '양심수 석방요구 집회, 다시 갖지 않기를', 민가협 집회/93.12.23 / 241
- 성명-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민가협/93.12.24 / 243
- '고문용인 발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 요구, 민가협 등 8개 단체/93.12.29 / 246
-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언제까지, '민가협 목요일집회' 새해 계속/94.1.7 / 256
- 민가협 '문익환목사 추모 목요일집회'/94.1.21 / 282
-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임수경·김광석씨등 출연, 22차 목요일집회, 3일 2시/94.2.3 / 309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가능한가, 민변·한교협인권위 공청회/93.8.6 / 35
-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93.10.21 / 137
- sbs '강기훈...' 방영취소,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93.10.27 / 145
- 민변 성명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93.10.27 / 147
-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93.11.4 / 162
-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민변·전국연합 토론회/93.11.25 / 191
- 국가안전기획부법 폐지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93.11.25 / 192

<불교 인권위원회>

- '창살없는 감옥생활', 6공 정치수배해제 촉구, 불교인권위/93.9.21 / 97
- 불교인권위, 수사기관 개혁 촉구/93.10.6 / 114
- 불교법률상담소 개설, 부산불교인권위/93.12.14 / 224
- 불교인권위 토론회/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한상범/ 93.12.15 / 228

<유가협>

- 유가협 박정기 회장, 국순단 부단장 맡아/93.8.4 / 31
- 이대창열사 4주기 추모식 /93.8.17 / 47
- 유가협, 범민족대회 기간 국회청원 서명운동/93.8.18 / 48
- 김용갑열사, 이대창열사 추모사업회 추모비 건립 추진/93.8.18 / 48
- 「유가협」 호남지부 총회/93.8.25 / 55

- 속초 동우전문대 분규예고, 김용갑열사 추모비건립등 요구 단식농성/93.8.25 / 55
- 속초 동우전문대 파행적 운영, 학내신문 사전검열, 전재욱 이사장 금품제공/93.8.26 / 57
-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들 단식농성 풀어, 재단측에서 요구사항 대부분 받아들여/93.8.31 / 62
- 검찰, 안기부 직원 증인 신청, 이공순 기자 25차 공판에서/93.9.9 / 81
- '주한미군 철수, 임용고사 철폐' 주장하며 분신, 8일 광주교대 이경동씨/93.9.9 / 81
- 이경동씨 유서, 국민 여러분께 한 교대생이 호소합니다/93.9.9 / 82
- 분신한 광주교대 이경동씨 끝내 사망/93.9.10 / 83
- 고 이경동씨 「민주국민장」/93.9.11 / 85
- '의문사·고문등 과거청산 주력', 유가협 8차 정기총회, 회장단·명칭 개편/93.9.21 / 97
-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김귀정씨 손해배상 청구/93.9.24 / 103
- 이대창 열사 추모비 제막식/93.11.4 / 162
- "임용고시 철폐" 등 주장하며 또 분신, 10일 오전 광주교대 한상용씨/93.11.11 / 172
- 광주교대생 장례식 치뤄/93.11.13 / 176
- 이대창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기자 무죄/93.11.17 / 179
- 이대창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93.11.17 / 180
- 전태일 추모식 14일 열려/93.11.17 / 179
-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94.1.14 / 270
-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94.1.15 / 272
- 송광영열사 어머니 이오순씨 별세/94.1.27 / 292

<인권운동 사랑방/인권하루소식>

- 인권운동 사랑방 월례세미나 성황/93.9.1 / 64
- '문민적' 시대에 인권과수꾼, <인권하루소식> 창간, 400여 독자에게 배달/93.9.7 / 74
- <인권하루소식> 창간사,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93.9.7 / 73
- 창간격려문/93.9.7 / 75
- '사랑방' 이성훈씨 호주 외교훈련과정에 참가/94.1.7 / 256
-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의 인권현황' 논의/94.1.28 / 293
- 8차 월례세미나/장애인 복지실태에 관한 이해(발제 요약)/김정열/94.1.28 / 294
- 지령 1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94.2.4 / 313
- 만화로 본 <인권하루소식>/94.2.4 / 314
- <인권하루소식> 준비호 총목차(준비 1호-24호)/93.9.7 / 77
- <인권하루소식> 9월분 총목차(창간호-14호)/93.10.5 / 112
-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17호-36호)/93.11.2 / 158
- <인권하루소식> 11월분 총목차(37호-57호)/93.12.1 / 202
- <인권하루소식> 12월분 총목차(58호-77호)/94.1.6 / 254
-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78호-96호)/94.2.1 / 300

<천주교 인권위원회>

- 천정련 장기수 후원회, 지리산 3박 3일 수련회 가져/93.8.5 / 33
- "이장형·강희철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카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93.11.9 / 168

- 기자회견문:이장형·강희철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93.11.9 / 169
- '고 황인철 변호사' 추도미사 및 추도식/94.1.20 / 28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월간인권 9월호 발행, 한교협 인권위/93.9.18 / 95
- '창살없는 감옥생활', 6공 정치수배해제 촉구, 한교협인권위/93.9.21 / 97
- '제도개혁, 인권교육' 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장 취임/93.10.6 / 115
- 한교협 김재열 인권위원장의 취임인사말/93.10.6 / 115
-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93.11.19 / 183
- 성명서:살인누명 김기웅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93.12.11 / 219
- 성명서: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93.12.28 / 245
-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KNCC 인권위/94.1.12 / 263

<문익환>

- 범민족대회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일부 게재)/93.8.13 / 44
-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민가협 10차 목요집회/93.12.3 / 206
- '민족의 큰별' 추모의 발길 끊임없어, 「통일의 선구자 문익환 목사 겨레장」/94.1.20 / 280
-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 목사 겨레장」 소식/94.1.21 / 282
- 민가협 '문익환목사 추모 목요집회'/94.1.21 / 283
- 민주당 인권위 성명서:고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면, 복권 요청/94.1.21 / 283
- 「고 문익환목사 겨레장」 소식/94.1.22 / 284
-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조전/94.1.22 / 285

인권관련 정기간행물 색인

-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일-10일)/94.1.12 / 264
- 5대 일간지 기사색인(1월 11일-17일)/94.1.18 / 275
- 5대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1월 18일-24일)/94.1.25 / 287
-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1월 25일-31일)/94.2.2 / 303
- 1월 주·월간지 기사색인/94.2.2 / 305

평화의 날을 꿈꾸며

숨가쁘게 달려온 길이다.

<인권하루소식> 100호를 내던 날,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가끔씩 밤을 지새우며 편집을 마감하고 발송을 끝내고나면 '인권운동가의 인권보장'이란 우스개소리도, 내일 아닌 오늘의 계획도 이미 머리에서 사라진 축쳐진 모습만 남겨지기도 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동료인 노태훈씨를 눈 앞에서 연행해 갈 때 당황했던 인권운동가 지망생의 처량한 모습이 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사실 <인권하루소식>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연행되자마자 보내기 시작한 보도자료, 16차례의 보도 자료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맺어갔다. 그리고 '간첩사건'을 꿈꾸던 공안경찰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작업 속에서 소위 '문민'시대의 기대를 깨끗이 포기했다. 더더욱 93년 6월, 25년만에 열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의 "여기 우리들이 세계인권회의에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서 인권이 드디어 성숙에 이르렀다고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공상가다운 기조연설을 기억에서 지우기로 했다.

8월 4일 <인권하루소식> 준비 1호를 내며, 그것도 주 5일의 일간지를 내겠다고 오기를 부린 것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옷도 입기 전에 노태훈씨에게 수갑을 채우던 소위 '문민'시대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기사가 없으면 "오늘은 평화의 날입니다"라고 보내면 되지"라는 불행한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신대' '국가보안법' '양심선언 군인전경' '의문사' 등등 과거 군부독재의 유산이 시퍼렇게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을 채워갔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과 '수배'로 헤어진 손병선씨 부부의 소식, 암으로 숨져간 부인의 마지막 길을 가로막은 비정한 '문민'정부를 더이상 그렇게 부를 수는 없었다. 차라리 '문민'을 가장한 '문민적' 정부라며 분노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하나 호수를 더해가며 100호를 넘어선지도 1달이 지난 지금, <인권하루소식>에 여전히 '평화의 날'은 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는 기사를 어떻게 하나' 고민에 쌓일 때가 많아지고 있다.